

# SK(주), 美 모놀리스사와 국내 청록수소·고체탄소 출사표

내년 초 합작법인 설립 계약 예정  
SK 수소생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  
친환경 소재개발로 국내시장 선점

SK(주)가 국내서 청록수소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체 탄소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SK(주)는 미국 모놀리스와 국내 청록수소 및 고체 탄소 시장에 진출하는 등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주)와 모놀리스는 이번 MOU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체탄소 등 친환경 산업 원료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국내시장 사업기회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고체탄소를 2차전지 인조흑



SK(주) 장동현 사장(왼쪽)과 모놀리스 CEO 로브 헨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주)

연 음극재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모놀리스는 고순도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체 탄소도 함께 생산할 수 있다.

앞서 SK(주)는 지난 6월 리딩투자자

로 참여해 모놀리스 이사회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미국 최대 신재생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도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장동현 사장은 "SK와 모놀리스는 수소 사업 공동 파트너로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록수소를 SK 수소 생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탄소제로(Zero-Carbon) 고체탄소 사업 개발도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브 헨슨 모놀리스 CEO도 "글로벌 수준으로 청정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K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수소 생산방식 다변화, 수요 개발 확대,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다각적으로 수소사업 육성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SK는 2025년까지 청정 수소 28만톤 생산체제를 갖추겠다는 목표 하

에 미국 수소 시장 선도기업 플러그와 위와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세계 최초 청록수소 생산 기업 모놀리스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수소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수소 시장 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주) 관계자는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블루수소, 청록수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유통-공급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통합 운영하는 글로벌 1위 수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LS전선, 전송량 늘린 초전도 케이블 개발

23kV급 3상동축, IEC 규격 최초 획득  
전송량 20% 확대, 생산비 10% 절감

LS전선이 새로운 초전도 케이블을 개발하며 시장 리더십을 지속한다.

LS전선은 최근 '23kV급 3상동축'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 고장전력시험센터에서 전력연구원과 함께 2년여간 연구 개발을 거쳤다.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규격도 전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이 케이블은 초전도층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전력 전송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면서도 생산비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 중 전력



LS전선이 개발한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LS전선

손실이 거의 없고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다.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제품으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이 내년 시작하는 '초전도 플랫폼 사업'에 이 모델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데 이어 차세대 제품 상용화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기대된다.

LS전선 관계자는 "초전도 플랫폼 사업은 변전소 크기를 기존의 1/10 이하로 줄이고, 구축비용은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전력 설비의 증설이 어려운 도심에 중심으로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세계적인 ESG 경영 트렌드에 힘입어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초전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상용화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용기자

## 포스코ICT, 제조현장도 친환경 설비 적용

아세아시멘트·심팩인더스트리에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

포스코ICT가 제조 현장에서도 친환경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ICT는 아세아시멘트 제철사업장과 심팩인더스트리의 고순도 페로실리온(Fe-Si) 제조현장에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과 설비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세아시멘트가 운영중인 대용량 송풍기에 고효율 제어장치를 공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심팩인더스트리에는 전기강판 생산 시 부연료로 사용되는 페로실리온 제조

를 위한 전기로의 제어장치와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압축공기를 제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양사는 이번 사업으로 전력 소비를 30% 가량 감축하며 연간 4억원 이상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포스코ICT가 자체 개발한 설비 자동화 시스템인 포스마스터를 적용한다. 현장의 설비를 제어하는 PLC와 HMI, SCADA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다. 비용 감소와 운영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 등 상위 시스템 연동 인프라로 추후 스마트 팩토리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

## LG유플러스-키자니아 아이들 체험 서비스 메타버스 구축 추진

LG유플러스가 키자니아와 아이들을 위한 메타버스를 만든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키자니아와 '키즈 메타버스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 전용 메타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 이만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기획 등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별도 TF 조직을 꾸려 서비스 상세 기획과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함께 만든 서비스는 내년 중 U+아이들나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바타 캐릭터와 세계관, 브랜드 등도 양사 공동으로 설계하며, 아이들에게 가상 현실속 직업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문현일 아이들나라사업담당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유용한 체험형 학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 SKT, 블록체인 기반 DID 경쟁력 확대

신한은행·삼성SDS와 서비스 협력

SK텔레콤이 신한은행 및 삼성SDS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12일 신한은행과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이니셜 서비스 및 DID를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사는 2019년부터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니셜 DID 어소시 에이션' 주요 멤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제반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블록체인 DID 기술은 신원 인증 권리를 특정 기관이 아닌 본인이 갖는 것으로 매년 중앙 기관을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MOU는 이니셜 기반 신원·자격·권한 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증명 발행 및 수취,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수행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이 분산신원 증명 시장 선점을 위한 ICT와 금융의 이종업계간 협력 사례로 추후, 중장기적 사업 기회 발굴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지급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의 발행과 마켓플레이스 분야 사업 기회 발굴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3사는 각자 강점을 지닌 영역에서 DID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SKT는 이니셜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재 수행중인 DID 사업구조를 공유해 각 사간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신한은행은 금융 업무에 필요한 자격 검증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담당하고 고객 편의성 향상과 고객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SDS도 이니셜 플랫폼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컨설팅 및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Paperless화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전남 목포해인여자중학교 Girls can do IT 참가 학생들의 모습

/CJ올리브네트웍스

## CJ올리브네트웍스, 교육격차 해소 앞장

지역 중학생에 디지털 코딩 교육  
15주 간 100여명 대상 언택트 수업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지역에서 중학생 대상 언택트 디지털 코딩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J SW 창의캠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15주 동안 중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수혜지역과 학교도 확대했다.

특히 강원도 흥천여자중학교와 전라남도 목포해인여자중학교에는 CJ그룹

에서 추진 중인 CJ-유네스코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해 '걸스 캔 두 IT' 교육 과정을 진행, 창의융합형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을 제공한다.

걸스 캔 두 IT는 UN에서 정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주제를 배우고, IT기술로 일상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커리큘럼이다.

제주도 저청중학교, 김녕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년제 수업과 연계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AI머신러닝과 레고를 활용한 STEAM(창의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기술을 체험하며 창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